

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91
2018.3.18

2018년 주님의교회 표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요한복음 3:16~17, 창세기 12:3, 마태복음 9:35)

오늘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23,24

오늘의 주요기사

- 2 신년 특집 / 더 바이블
- 3 신년 특집 / 큐티 간증
- 4 영화로 읽는 성경
- 5 사역 소식
- 6 번식교회 소식
- 7 목회칼럼 / 정신학원 역사
- 8 아가나들이 / 공동체 소식

교회 일정

3/25(주일)	종려주일
3/26(월)~31(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30(금)	성금요일예배
4/1(주일)	부활주일
4/6(금)	금요기도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주님의교회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에는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다. 성경에서 40이란 숫자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 노아 홍수로 새 세상을 준비할 때 40일간 비가 내렸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했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금식기도를 했으며,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도 40일이 걸렸다.

사순절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준비하며, 주님이 겪은 수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가진 금식을 행하던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금식을 행했는데, 초대 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하여,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 앞서 금식을 행했던 것이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연극, 무용, 연애 소설 읽는 것과 같은 오락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었으며,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등 호화 생활 등도 자제되었다. 대신 자선과 예배 참석, 기도 등이 권장되었다.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Lent)는 고대 앵글로 색슨어 Lang에서 유래된 말로, 독일어의 Lenz와 함께 ‘봄’이란 뜻을 갖는 명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의 희랍어인 ‘테살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한다. 이는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도중에 들어있는 주일을 뺀 40일간을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 묵상하며 경건히 보내고자 하는 절기이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날은 재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 속죄일 등으로 불리워진다.

사순절

사순절을 기념하는 다양한 풍습이 이어져 내려왔다. 종려나무를 태운 재 혹은 숫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풍습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에 행해지던 풍습이다. 이때 사용되는 재는 지난해 종려 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태워 만든 것으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으로 이끌었던 인간의 죄에 대한 참회의 표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 이는 또한 아름다운 풀과 꽃이 잠깐 후면 마르고 시들 듯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도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지고, 한 줌의 흙에서 왔던 우리도 또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엄숙한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다.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정비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금식은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관습이었다. 시기와 장소에 따라 금식의 기간과 그 엄격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 사역을 기리고 하늘나라의 백성됨을 감사하며 그 백성 된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돌이키게 하는 금식 기도는 초대 교회 시대부터 행해졌었다. 오늘날 행해지는 금식 기도는 엄격했던 초기의 형태에서 많이 변형되어 절식(節食)기도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다. 사순절에는 범죄한 인류를 위해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불우한 이웃을 위한 구제와 자선이 행해졌다. 특히 사순절에 행해지는 금식 기도를 통해 주님의 고난에의 동참, 불의한 자신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의 배고픔과 가난을 생각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주님의교회에서는 2018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는다. “고난을 가로질러 영광의 길로” 라는 주제이며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새벽 5시 20분 대예배실에서 드리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20,21)가 주제 성구이며, 호산나, 시온, 샬롬, 임마누엘, 미시오데이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 후 자녀 축복기도가 특별순서로 들어 있다. 올해 부활절에는 부활주일 예배 외에 특별한 행사는 갖지 않는다.

함즐함울

신년특집 / 2018년 주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④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를 깊이 생각한다

지난 호에 이어 2018년 주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역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 안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볼 기회를 갖는다. <함줄함울>은 총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한 자료를 입수, 몇 회에 걸쳐 요약 분재하여,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기로 했다.

3. ‘마을목회’,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미래(계속)

첫째,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가?

이에 대해 성서는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 있다고 분명하게 대답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씀은 성육신의 원리를 교회의 존재론적 근거로 명백히 제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음은 그리스도께서 최악이 가득한 세상의 현실 속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 역시 그 성육신 사건을 오늘날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재현하는 공동체이며,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제자들의 공동체이다. 즉 교회의 존재양식은 그리스도의 존재양식과 같다. 교회는 세속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역사에 대한 신학적 인식을 가졌다는 것일 뿐이다. 아직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 이들은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도 그것이 죄가 되는 줄을 모른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 따라서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다.

역사로부터 분리된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

둘째,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성서는 세상이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 있다고 분명히 증언한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같다. 그는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라는 말씀 속에서 명확히 드러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섬기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공동체로서 그가 하신 일을 해야 한다. 교회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면 생명도, 가치도, 빛도 상실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사명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믿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요.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봉사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맛없는 소금과 어둠에 묻히는 희미한 빛이 되고 말 것이다.

셋째, 교회가 세상 안에 세상을 위해서 있지만, 교회는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서가 분명하게 증언하는 가르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자신과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을 강조하셨다(요 15:19, 17:16~17).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며 또 세상을 위해 존재하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음은 기독교의 역설적 고백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였고, 세상 속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받을 것이라 경계하셨다. 여기서 ‘세상’이란 세속 세계의 전체적인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소금과 빛’은 소수의 그리스도인 또는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비유한다. 만약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서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타협하고 영합하면, 맛없는 소금같이 오히려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을 본받고 세속적 가치에 영합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악을 행하는 것이다.

세상에 참여함에 있어서 교회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의 모범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그리스도는 세상에 참여했으나 그들과 같이 되지는 않았다. 둘째, 그는 세상에 참여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였다(눅 19:10).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모여 있을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아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고 세상 속에는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하여 교회 안에서만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긴 까닭이다. 바른 신앙생활은 교회에 모여 있을 때나 세상 속으로 흩어졌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교회의 건물과 공간 속에 갇힌 종교적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특히 오늘과 같이 파편적이고 분열적인 세상에 보냄 받은 교회공동체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웃과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을목회’는 다시 거룩한 교회의 비전을 새롭게 하여 한국사회와 지역사회와 마을 속에서 ‘하나님나라’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다. 이를 통해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부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2018년 주제를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교단 소식

교회에서 이런 용어 쓰면 신천지 포교자

총회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에서는 3월 12일, 교회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용어를 통해 침투한 신천지 포교자(일명 추수꾼)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포교자들은 신천지교회와 정통교회를 오가며 활동하다가 무심코 자신들의 용어를

포교를 위해 침투한 정통교회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전도회’를 ‘부녀부’로 부르는 경우가 많으며, “배도-멸망-구원”이라는 신천지 교리를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모 교회 장

로가 대표기도 중 “배도, 멸망,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라고 말했다가 추후 조사를 해보니 ‘신천지’로 파악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비유풀이’나 ‘말씀의 짝’ 등도 ‘신천지’의 주요 용어들이다. 그 외에 누군가 접근해 질문으로 “천국에 문이

몇 개인줄 아느냐?”, 혹은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나는데 나팔 소리가 몇 개인지 아느냐?” 등을 물어본다면 ‘신천지’로 의심할 수 있다고 한다.

함줄함울

신년 특집 / 큐티

큐티의 방법과 실제

전교인 대상으로 한 큐티 세미나

지난 1월20일에 개최된 첫 번째 전교인 큐티세미나(이희분 권사, 천만큐티운동본부)에 이어 2월24일(토) 오전 10시에 대예배실에서 김덕수 교수(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를 강사로 모시고 두 번째 전교인 큐티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큐티를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사적 혹은 신비적으로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만남은 반드시 성경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첫 번째 큐티세미나에서는 실제 경험에서 큐티의 의미와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큐티 생활화를 위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삼았다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큐티의 방법과 실제’라는 실천적 주제를 다루었다. 김화수 목사가 평소 “성경의 말씀이 보물상자라면, 큐티는 보물상자를 여는 열쇠”라는 비유로 큐티의 중요성을 강조한 덕분인지 토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대예배실은 큐티를 열심히 하려는 교인들로 가득 찼다.

김 교수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커다란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지만 정작 교인들은 설교와 예배의 소비자에 머물렀지 말씀을 삶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 사회로부터 조롱과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의 제기에서부터 강의를 시작하였다.

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된 인격, 즉 영성을

드러내야 한다”면서 그 수단인 큐티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조용한 시간”으로 정의하였다. “공동체가 다 같이 참여하는 예배와 큐티가 다른 점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김 교수는 “큐티를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가 사적 혹은 신비적으로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만남은 반드시 성경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큐티를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기도를 통하며 그 말씀을 내면으로부터의 응답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이때에도 “기도시간이 사적이고 신비적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 역시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나아가 큐티를 종종 지식 중심의 성경공부 또는 성경통독과 혼돈하기 쉬운데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이라는 점에서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김 교수는 “큐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김 교수는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큐티는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도만이 기독교 삶의 전부라고 강조하는 것과, 전도가 기독교인의 삶에서 유일무이하게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할 수 없듯이, 큐티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균형 잡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당부하였다.

김 교수는 큐티는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가장 단순한 큐티의 3단계 방식을 소개하였다. 이는 첫째,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기록하고, 둘째, 본문을 통해 나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는 것이다. 결국 큐티의 핵심은 “하루 중 일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을 삶에 적



“한국 교회가 그동안 커다란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지만 정작 교인들은 설교와 예배의 소비자에 머물렀지 말씀을 삶에 옮기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 사회로부터 조롱과 배척을 당하고 있다”

용하기 위한 기록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큐티를 위한 복된 마음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들으려고 하는 자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세”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김 교수는 큐티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PRESS 방식을 소개하면서, 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하기’(Pray for a moment), ② ‘말씀 읽기’(Read His Word), ③ ‘말씀 묵상하기’(Examine His Word), ④ ‘하나님께 응답하기’(Say back to God), ⑤ ‘다른 사람들과 발견한 것을 나누기’(Share with others what you have found) 등 다섯 단계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김 교수는 보통



“큐티의 3단계는 첫째,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기록하고, 둘째, 본문을 통해 나에 대하여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며, 셋째, 그래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는 것이다.”

어렵게 여기는 ‘말씀 묵상하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SPACE 방법을 소개하였다. 즉, 묵상의 순서를 ㉠ ‘고백해야 할 죄’(Sins to confess), ㉡ ‘주장해야 할 약속’(Promise to claim), ㉢ ‘버려야 할 행동들’(Actions to avoid), ㉣ ‘순종해야 할 명령들’(Commands to obey), ㉤ ‘따라야 할 본’(Examples to follow) 등의 정해진 것들을 차례로 따라가며 진행하면 좀 더 수월하다고 하였다.

김 교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얻은 말씀은 실제 삶에 적용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적용은 실현가능한(possible) 것이어야 하고, 실제적(practical)이어야 하며, 개인적(personal)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김 교수는 우리가 변하려면 주님의 역사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수고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 교수는 참석한 교인들로부터 큐티를 하면서 생긴 궁금증과 강의에 대한 질문을 받아 상세히 답을 하면서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강의를 마쳤고, 이어진 김화수 목사의 맺는말로서 두 번째 전교인 큐티세미나를 마무리하였다.

함줄함줄

영화로 성경 읽기

〈세이프 오브 워터〉, 물이 이루는 사랑 이야기

프레임 이야기

우리 속담에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마음에 들면 된다는 뜻이거나,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뜻이겠다. 미국의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1980년대에 ‘프레임 이론’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사람들이 삶의 여러 국면에서 만나는 사건과 사물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틀을 ‘프레임’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의 책 〈삶으로서의 은유〉(1980)는 사람들이 정치와 사회, 문화와 역사의 이해에서 사용되는 은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사회·정치적 의제들에 대한 개인들의 경험과 태도는 은유라는 이름의 언어 구조 안에서 프레임 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다. 종교 언어와 하나님 모델에 대한 은유를 연구한 샐리 맥페이그의 〈은유신학〉(1982)도 분명 조지 레이코프와의 교감이나 영향 아래 지어졌음이 분명하다(이 책은 정말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주어야 할 명저이다. 문제는, 절판되어 책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변명이거나 사족

사족이 너무 길었다. 프레임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한 이유는, 작년에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인 황금사자상을, 올해 3월의 미국 아카데미상에서는 최우수작품상을 받아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영화로 꼽힌 기에르모 델 토로 극본, 제작, 감독의 〈세이프 오브 워터〉에 대한 감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이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이 영화가 이런 영화인 줄 몰랐다. “종을 초월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는 광고 카피와 아름다운 물 속 포옹 장면이 마음을 놓고 있다가, 느닷없이 등장하는 공포스럽거나 잔인한, 때로는 19급에 가까운 장면들에 여러 번 놀랐기 때문이다.(비위가 약하거나 심신이 약하신 분들은, 물론 참 좋은 영화지만, 안 보시는 것을 권장한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미국과 소련 사이의 우주전쟁이 한창이던 1963년, 아마존의 강

에서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던 양서류 인간을 잡아, 미국 볼티모어에 있던 연구소로 이송해서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한다. 이 연구소의 청소부로 있던 농아 엘라이자가 보안 책임자였던 스트릭랜드에게 고문을 당하는 이 양서류 인간을 애처롭게 여겨 탈출시키다가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SF 영화이다.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랑 이야기는 온갖 역경을 이겨내어 결국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로 귀결되므로, 이 영화를 보는 가운데 결말이 궁금하지는 않았던 셈이다. 어차피 사랑은 이루어질 테니까. 그런데, 영화의 중반 이후부터, 내게 작동된 것은 또 다른 프레임이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이 적용하지 않았던 나만의 프레임. 그러니 혹시 아래 내용을 읽으시다가,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물의 모양’과 예수님의 은유

이름은 때로 본질을 구성한다. 김춘수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는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름이 본질의 일부를 알아채었다. 예술작품의 이름도 본질의 일부가 된다. ‘물의 모양’이라는 뜻인 이 영화의 이름은 이 영화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흔한 사랑 이야기였다면 이 영화의 이름을 왜 “물의 모양”이라고 붙였을까.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영화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미녀와 야수”도 있지 않은가? “괴물과의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테고, (E.T)의 사례를 따라 “낯선 해양생물”이라고 붙일 수도 있었다. “물빛 사랑”이라면 좀 더 감미로우면서 더 구체적이지 않았을까?

이 영화의 제목에서, 극본을 쓰고 제작과 감독을 겸한 기에르모 델 토로의 뜻을 유추하기 시작했다. 감히 말하자면, ‘물의 모양’은 ‘사랑의 모양’을 말하고, ‘물의 모양’은 ‘예수님의 은유’라고, 내가 갖고 있던 성경의 프레임이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영화를 보는 가운데 나의 프레임이 내게 조목조목 설명한 논리



는 다음과 같았다.

양서류 인간은 아마존의 원주민 사이에서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초월적 존재, 신으로 알려졌으나,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 집착한 미국의 군부에 의해 잡혀와 군사적 목적의 활용 가능성을 위해 연구소의 수조에 감금된다. 보수적인 기독교인인 스트릭랜드는 보안책임자로서, 양서류 인간을 전기충격기로 고문한 끝에 해부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한편 소련의 스파이였던 생체학자 호프스테들러 박사도 소련의 지시에 따라 미국에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 양서류 인간을 죽여야 하는 입장이 된다.

이 연구소의 청소원인 엘라이자는 선천적으로 듣기는 하나 말은 못하는 언어장애자로, 동료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젤다와 친하며, 이웃집에 사는 화가인 자일스라는 게이 노인과 가족처럼 지낸다. 스트릭랜드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지만, 양서류 인간에게 측은심을 갖는 엘라이자와 젤다에게 “신은 인간을 만들 때 신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면서, “물론 당신들보다는 내가 신의 모습에 더 가까울 것이다”라며 인종 차별, 장애인 차별, 성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는 인물이다. 말하자면, 예수님 시대에 자신들만 신을 믿는 정통을 이었다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핍박한 바리새인과 같은 인물인 셈이다. 반면 양서류 인간과 수화를 통해 교감하기에 이르는 엘라이자, 그리고 그 이를 돕는 젤다와 자일스는 모두 사회에서 차별받는 장애인, 여성, 흑인, 그리고 게이이다.

프레임은 말한다. 이 영화의 양서류 인간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존재이다. 차이가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물에서 올라온 것일 뿐. 양서류 인간은 치유의 능력으로 원주민들 사이에서 신으로 추앙받지만, 영화 속에서 묘사된 스팀펍크적 과학기술의 능력에 도취된 백인 주류 계층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기충격기로 고문을 자행하고 피를 흘리게 한다. 이런 양서류 인간의 고통을 교감하고 그를 구해내는 것은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 고립된 사람들이다.

엘라이자가 양서류 인간을 탈출시켜 욕조에 넣어 생명을 유지하는 장면은 로마인들의 박해를 피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유하던 기독교인들의 카타콤베와 다르지 않다. 스트릭랜드에게 양서류 인간이 숨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젤다의 흑인 남편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의 은유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밀물을 맞아 부두로 탈출한 양서류 인간과 엘라이자가 스트릭랜드의 총에 맞아 죽은 후, 양서류 인간은 스스로 치유하는 기적을 보이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죽은 엘라이자를 안고 하늘 나라를 닮은 바다로 들어간다. 물 속에서 양서류 인간은 엘라이자를 다시 살려낸다. 양서류 인간의 손이 스킨자 엘라이자의 목에 어렸을 때부터 있던 흉터가 아가미로 변해, 엘라이자도 물속에서 호흡하게 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일스가 기억하는 옛 시의 자막이 떠오르며 영화의 막이 내린다. “그대의 모양 무엇인지 알 수 없네, 내 곁에는 온통 그대 뿐, 그대의 존재가 사랑으로 내 눈을 채우고, 내 마음 겸허하게 하네, 그대가 모든 곳에 존재하기에...”

이러니, 이 영화가 인종과 성적 정체성과 장애와 종을 뛰어넘는, 그 모두를 품었고 그들과 교감했던, ‘예수님 사랑’의 은유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함줄함줄

〈영화로 성경 읽기〉는 우리가 보는 영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영화는 2017년 발표된 〈세이프 오브 워터〉 편입니다.

사역소식 / 청년부 통일선교팀

명절맞이 너나들이 모임



2018년 2월 18일,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모인 주일 아침, 너나들이 모임에서는 맛있는 떡국과 북한 음식인 인조고기밥을 곁들여 풍성한 식탁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준비해주신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음식들을 함께 모여 앉아 먹으며 서로의 사는 이야기, 고민 등을 나누며 설 덕담을 전해보았습니다.

이어 민속놀이인 윷놀이를 하며 겨자씨별 대항으로 즐겁게 노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씩 윷가락을 잡고 함께 던지며 겨자씨별로 단합하는 시간이었는데, 상품이 걸려 있었기에 모두들 열심을 내며 윷치락뒤치락, 말을 잡고 잡히는 치열한 놀이 끝에 승부가 가려졌습니다. 결국 승부를 떠나 모두 함께 웃고 즐기

며 너나들이 하는, 설 연휴의 풍성한 마무리였습니다.

‘너나들이’는 순우리말로 ‘서로 너나 하고 부를 정도로 터놓고 지내는 사이 혹은 그렇게 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담아 ‘너나들이 모임’으로 명명한 남북 청년들의 모임은 매 주일 11시 반부터 1시까지 진행됩니다. 윗동네에서 온, 그리고 아랫동네에서 자라온 청년들과 장년분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삶을 나누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다함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너나들이 모임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윤미** 자매 / 청년부

사역소개

어와나를 소개합니다



AWANA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뜻이며 영어 성경(KJ Version, 1950)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의 첫 글자를 따온 이름입니다. 주님의 교회 어와나는 2004년 12월 4일 시작되어, 한국에서는 67번째 어와나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커비단(5~6세), 불티단(7~9세), T&T(10~13세) 3개의 클럽단이 있으며, 1년에 2학기 30주의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싹트네실, 소년부실, 다목적관에서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와나 모임에 올 때에 예쁜 단복을 입고 오며, 신나고 재미있는 게임시간, 매주 부모님과 함께 외운 말씀을 체크하는 핸드북 시간, 찬양과 말씀선포, 시상으로 이루어진 교

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들로 훈련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우리 친구들은 해마다 전국에 있는 클럽단이 모여서 실력을 겨루는 어와나 올림픽과 성경 퀴즈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와나 본부에서 개최하는 교사 컨퍼런스와 교사 영성수련회에 참석하여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가기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권효정 전도사 / 어와나

사역보고

싱그러운 연두빛 젊은이들의 겨자씨 개강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었다. ‘얼어 죽지는 않았을까?’ 염려되던 나무들의 마른가지 끝에는 어느새 봉오리가 도톰하다. 만물이 소생케 되는 봄, 싱그러운 연두빛 봄과 가장 잘 어울

리는 8교구가 3월 첫 주일 오후 1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2018년 겨자씨 전체개강모임을 200여명(자녀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젊은이분과위원장 이성준 장로의

기도로 시작된 모임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으로 허준 목사(8교구 담당)가 메시지를 전하였으며 이어서 섬김이와 새 가정을 소개하고 각 겨자씨별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겨자씨는 큐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언제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담임목사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7월 첫 주일 종강예배까지 15번의 모임을 가지게 된다. 작은 겨자씨 하나도 땅에 심고 물을 주어 돌보면 새가 깃드는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듯,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소망하는 젊은이들이 겨자씨 안에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한 주간 말씀 앞에 비추어본 각자의 삶을 나누면서 함글함글 하여 2018년 표어인 “거룩한교회 다시 세상속으로”를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한다.

8교구는 젊은이분과위원회의 사역 지원을 받고 있으며 40세 이하(아내 기준)의 부부와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싱글로 구성되어 있다. 26개의 겨자씨(부부22, 싱글4)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중, 16개(부부14, 싱글2)의 겨자씨 240여명이 멘토리더(11명), 인도자(13명), 중보기도팀(9명), 자녀돌보미(3명)의 섬김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지형 전도사 / 8교구

번식교회 소식 / J주님의교회 임창진 목사

새로운 봄을 맞이하여

안녕하세요?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었는데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올 3월부터 J주님의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처음 J주님의교회 사역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기에 좋은 곳이고, 그 마음이 없다면 목사로서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미 조직되어 있고, 안정된 교회에 부임해서 사역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제게 주시는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등록인원은 청, 장년 25명, 아동 15명이고, 일시적 방문을 제외하고 평균적인 출석인원은 대략 청, 장년 22명, 아동 11명 정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몇 가지 이유에서 교회이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에는 아이들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장년 예배 시 아이들 위한설교를 약 10~15분정도 한 후 식사하는 공간으로 나가 2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 공간의 부족입니다. 주일날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7~10대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만들어 가는 일에 함께 쓰임 받는 교회 되려 힘쓰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해 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교회를 통해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도입니다. 예전엔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교회가 위치한 거여역 반경 1km안에 약 7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 주위엔 어디서나 교회를 볼 수 있지만 이 지역엔 특히 교회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데, 장소를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

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개의 대형교회가 존재하는 것보다 지역 지역마다 건강한 중, 소형 교회들이 자리를 잡는다면 지역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런 교회들이 연합한다면 대형교회 하나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J주님의교회도 건강한

중, 소형 교회로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주님의교회에서 분립한 길가의교회, J주님의교회가 연합하는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면, 어느 일정 인원이 되면, 우리교회를 계속 성장시켜 나가기보다 교회분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하

면서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교회 때문에 지역의 주민들이 행복해 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교회를 통해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의교회에서 6년간 사역하면서 주님의교회가 가진 장점도 보았고, 더불어 어쩔 수 없는 한계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주님의교회 출신 목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그 이름처럼 주님이 주인되신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고향과 같고, 친정과 같은 주님의교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이때에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만들어 가는 일에 함께 쓰임 받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임창진 목사 / J주님의교회

사역간증 / 아버지학교(강남57기) 참여 후기

이 시대 아버지들을 위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 가정의 영적 지도자인 아버지를 바로 세우는 운동, 아버지학교가 2018년 새해 주님의교회에서 개설되었습니다. 저는 2005년 여름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학교가 처음으로 개설되었을 때 동부18기로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아버지학교에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여 이 시대 아버지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해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뜻밖에도 이번에는 7조 조장으로 섬기게 되어 5명의 40대 아버지를 지근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제가 섬긴 우리 조 5명의 아버지들은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가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 시대의



평범한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만남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지난 시절 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분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내와 가족으로부터는 사랑도 없고, 권위도 없고, 신뢰마저 잃어버려서 가족들에게 유리되어가는 억울한 처지에 놓인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소리 없는 절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안타까운 한 주, 한 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5주간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아내를 초청해 천국잔치를 열었을 때, 저는 아버지들과 감격으로 허킹하며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중도탈락 없이 모두 수료하게 된 것이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알고 진정한 아버지로 거듭나는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노력하는가? 가족은 왜 이해 못 하는가? 하

나님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빼앗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우리는 헛된 것을 쫓다가 모두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육과 가치관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시대의 허상을 쫓으며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속의 진리를 바로 알았더라면 아니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속의 분을 낮추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높은 지위, 재물 등 주변에서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면 그들도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정상철 안수집사

목회칼럼

밥 먹었니? 밥 먹자!

힘과 물질은 가졌으나,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든 군중 속에서 삭개오는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 삭개오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다가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왜’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삭개오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차별하고 자신들의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삭개오를 대하시며 그의 집에 함께 머무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눅 7:34)’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자 예수님의 별명이었습니다. 예

수님은 ‘함께 먹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함께 먹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오랜 시간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많이 건넬 말은 “밥 먹었니? 밥 먹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도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라는 말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사역의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엉엉 울기도 하고, 크게 웃기도 하고, 진심어린 대화를 나누며 말씀 속에서 위로를 나누었던 기억 모두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2009년 어려운 일을 겪은 한 아이를 만나기 위해 아이가 사는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그 아이는 밥 먹었냐는 저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끼니를 챙겨먹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무작정 식당으로 가서 갈비탕 두 그릇을 시키고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갈비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몇 숟가락 떠먹던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외로움과 아픔에서 터져 나온 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함

께 밥을 먹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 그 아이는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라고 연락을 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심으로 삶을 나누는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며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잘 먹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잘 먹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20-30년 전과 비교해보면 오늘 날은 훨씬 더 풍성한 먹거리와 먹을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날의 시대 속 청소년들을 더 잘, 제대로 먹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한경쟁과 물질주의의 시대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으로 준비된 밥상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소외와 분리의 자리에서 친절과 사랑과 평화로움 안에서 만나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을 누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공급되는 자리이며, 은혜 안에서 영

과육이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주님의교회 중등부를 사임하고 2018년 첫 주일 다시 주님의교회에 부임했을 때, 1층 사무실 앞에서 한 청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중등부 때 함께했던 아이가 잘 자라 청년이 된 모습에 기쁨의 함성으로 외쳤습니다. “○○아! 밥 먹자!”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청년을 만나 함께 밥을 먹으며 지나온 시간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우리 자주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며 사랑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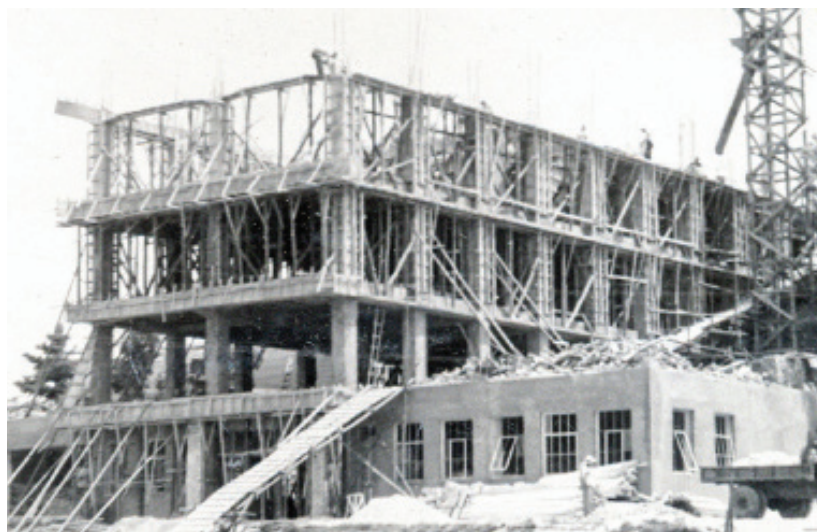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많이 건넬 말은 “밥 먹었니? 밥 먹자!”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도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소외와 분리의 자리에서 친절과 사랑과 평화로움 안에서 만나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을 누리는 밥상의 만남을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먹기를 탐하며’ 청소년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임경순 목사

정신학원에 갇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52

학교 재산의 양도과정(1)

미북장로회 선교부로부터 재단법인 정신학원으로



신축중인 과학관(1958년)

1960년 12월 23일, 재단법인 정신학원의 정관이 변경되었다. 1956년 재

단법인이 설립될 당시의 정관은 보통의 재단법인처럼 이사회에서 결

의된 사항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되었다. 그러나 재단법인이 미국 북장로회 소유의 학교의 주요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편입시켜줄 것을 요청하자, 일단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는 기본재산과 이사회의 선출 등 재단 권한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먼저 경기노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문교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학교의 실질적인 권한을 경기노회가 갖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정관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노회(이하 노회라 칭

함)의 인준과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매매, 기부, 양도, 교환 또는 담보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제6조).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거하여 노회의 인준을 받아 문교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취임하도록 했으며, 법인을 경영하는 학교장은 재임 중인 이사가 맡도록 했다(제12조). 또한 제6조와 제12조는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으며(제25조), 그 밖의 조항은 이사 정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서 노회의 인준과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이희천 정신여고 교장

아기나들이



응웬빈희 아기

2017년 9월 27일생

1. 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2. 영원한 희망이라는 이름 뜻에 걸맞게 세상과 사람들에게 밝고 건강한 희망의 메신저가 되도록
 3. 빈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자라도록
- 아빠 응웬씨푸 간사 / 엄마 쩌티탄유엔 사모
2018년 2월 25일 3부 예배



김지안 아기

2017년 9월 9일생

1. 주의 사랑 안에 자라나 온 세상에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2. 험한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기를
 3. 지안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늘 마음 속에 지니고 살아가기를
- 아빠 김도윤 / 엄마 천지혜, 2018년 3월 11일 2부 예배

공동체 소식

무지개 호스피스 58기 교육 개강



3월 18일(화) 무지개호스피스 58기 교육이 시작되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5명의 교육생이 참석을 하여 매주 목요일 12주 교육을 받아 수료를 마치게 된다. 개강 예배는 김화수 담임 목사가 “하나님 사람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믿으시고 저희들을 봉사자로 왜 불러 주셨을까? 얼마나 믿어주셨으면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셨을까? “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다.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팀에서는 40여명의 봉사자들이 10여군데 호스피스 병동과 요양병원과 장애인 시설에서 말기암 환자 봉사와 장애인 봉사와 주일예배 찬양 등 삶과 죽음 사이에 싸우는 말기암 환자들 1분 1초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하면서 한주도 쉬지 않는 천사와 같은 봉사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만날 소망이 있기에 최선을 다하며 봉사를 하고 있다.

사랑의 털모자를 뜨신 김명순님께 감사장을 드리다

(사)섬김과 나눔 부설 늘푸른대학에서는 3월 13일(화) 섬김과 나눔 총회 중에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사랑의 털모자 뜨기 운동에 참여, 300여 개의 모자를 떠주신 김명순님께 감사장을 전달했다. 다른 교회 분이신데 늘푸른대학 행사에 적극 참여를 해주셨다. 함께 참여한 따님은 “90세이신 어머니께서 매일 기쁨으로 모자를 뜨고 계십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로써 삶의 보람이라고 말씀하시곤 하시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님의 교회와 담당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늘푸른대학 제 10기 입학식



늘푸른대학 제 10기 입학식이 3월 6일(화)에 중강당에서 열렸다. 정창화목사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말씀 후에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노봉욱 늘푸른대학 학장의 10기 사역자 및 강사 소개가 있었다. 2부 축하공연으로 대한항공여승무원 카사코스 공연으로 다가오는 봄을 노래로 미리 맛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늘푸른대학 정원은 15개반 270명 정원인데 모집하는 첫날에 모두 마감되어 늘푸른대학 인기를 실감하였다. 학사일정은 7월 3일까지 17번의 강좌로 진행된다.

정신학원 소식

운동장도 교실입니다



2018년 3월 14일 봄빛을 받아 화창한 정신학원 운동장의 딱딱해진 표면이 잘게 부서지고 평탄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개학과 함께 운동장을 고르는 일입니다. 일 년에 한 번, 봄이 되면 겨우내 얼었다 녹으면서 패이고 굳어진 운동장의 마사토를 헤집어서 고르게 펴고 롤러로 다져서 학생들이 운동하기 좋게 만듭니다.

학교에서는 운동장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그런 귀한 공간을 개방하여,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교인들의 차를 주차하도록 허락하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차들이 들락거리며 남긴 바퀴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아 정신학원의 귀한 땅들이 운동하다가 다칠 수 있을 울퉁불퉁한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비 오는 날 운동장 주차를 금하는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주일마다 한겨울에는 살을 에는 찬바람에, 한여름에는 달궂진 땅에서 복사된 뜨거운 햇볕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잃지 않는 주차안내부 성도들의 땀방울도 운동장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담 밖에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있는 교통의 요지, 할 수만 있다면 차를 안타고 오시는 것이 좋고, 부득이 차를 갖고 오시더라도 이 모든 사정 헤아려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님의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함줄함줄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리시나요?

설교 청취용 이어폰을 빌려드립니다.

대예배실 실내 음향 간섭으로 설교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난청장소에 앉으시게 되는 교인들을 위해 최신형 실내 이어폰 수신기를 구입, 3월 11일부터 예배시간에 3층 로비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교구명, 거주지명,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이어폰 수신기를 빌려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립니다

1. 온 가족이 함께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주제 : '고난을 가로질러 영광의 길로'

일시 : 3/26(월) ~ 31(토) 오전 5:20 대예배실

강사 : 김화수 담임목사

2. 2018 해외선교 비전트립 모집(선착순)

코스타리카 (8/4 ~ 8/13, 23명 - 고등부 10명 포함)

신청(로비1층) : 3/4 ~ 3/25 매주일 오전 8:30 ~ 오후 2:00

문의 : 이재홍 안수집사(010.7738.4455)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